

# 창가학회의 역사와 발전

## (1) 창가학회의 설립

창가학회는 초대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회장과 2대 도다 조세이 회장의 사제관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871년 6월 6일, 현재 니가타 현의 카시와기 시에 해당하는 일본 북서해안의 작은 항구마을에서 태어난 마키구치는 일본의 최북단 섬인 홋카이도에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청춘 시절을 보낸 후, 18세에 교사 교육기관에 들어가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학생 시절부터 마키구치는 지리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교사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지리학에 대한 사상을 정리하며 어떻게 하면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1901년 홋카이도를 떠나 도쿄로 옮겨온 후 2년이 지나 첫 번째 저서인 ‘인생지리학’을 발간하였다. ‘인생지리학’에서 그는 단순암기위주의 전통적인 지리학습방법을 부정하는 대신, 자연과 사회와 공유하는 인간의 인생과의 상관관계에 기반을 둔 교육을 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1913년 토세이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기 전 마키구치는 교육간행물의 편집과 외국학생의 교육, 그리고 정식교육을 받지 못하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통신교육과정의 설립과 교재개발 등의 다양한 일을 하였다.

도다 조세이는 1900년 2월 11일, 지금의 이시카와현 카가시에 위치한 일본 중서부 해안가 마을에서 태어났다. 2년 후 그의 가족은 홋카이도의 서부해안인 아쓰다 마을로 이주했다. 아쓰다에서 고등교육(중학교 과정)을 마친 도다는 일하면서 독학으로 공부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1918년 6월 보조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 도다 조세이와 은사 마키구치의 만남

1913년에서 1932년 사이, 마키구치는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교육이론과 실용적인 응용방법을 재정립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해 배우고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교육을 대변하였으며, 혜택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고, 교실 밖에서도 학생들에게 마음을 쓰는 교사였다. 예를 들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점심을 사주고, 추운 날에는 학생들이 손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기도 했다.

1920년 도다는 마키구치를 만나기 위해 도쿄를 방문하게 된다. 두 사람은 장시간 동안 일본의 미래와 교육적 실천 및 연구에 관해 토론했다. 그리고 얼마후 도다는 도쿄로 이주하여 마키구치가 교장으로 있던 니시마치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고, 그로부터 23년간 마키구치와 함께 일하며 그를 돕게 된다.

## 창가교육학회

도다는 스승을 따라 미카사 초등학교로 옮겼고, 마키구치가 다음 학교로 옮긴 1923년에는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사립 준비학교인 지슈 학원을 설립했다. 여기에서 마키구치는 자유롭게 연구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교육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니치렌 불법을 접한 후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이 자신의 이상과 깊이 공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마키구치는 1928년 57세의 나이로 입신하였고, 도다도 곧 뒤를 따랐다.

자신의 교육이론을 출판하겠다는 마키구치의 목표를 위해 도다는, 스승이 수년에 걸쳐 축적해 온 교육연구자료와 실천서, 그리고 경험을 담은 노트를 편집 정리하였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 마키구치의 책을 출판하게 된다.

1930년 11월 18일, 도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마키구치는 4권에 걸친 ‘창가교육학 체계’를 처음으로 출판하게 되는데, 마키구치가 저자, 도다가 발행인, 그리고 창가학회의 전신인 창가교육학회가 발행기관으로 되어있으며, 이 날이 바로 창가학회의 설립일이 되었다.

마키구치는 이 책에서 가치를 창조한다는 뜻으로 ‘창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도다와 마키구치의 토론을 통해 나온 것이다. ‘창가’란 마키구치가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해온 이론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인간은 문제를 만들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인간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사실 가치 창조는 인간의 속성이다. 어떤 사람의 강한 개성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의 우수한 가치 창조 능력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실천**

1937년 창가교육학회는 창가교육학 이론을 지지하는 교육자들의 조직으로 정기적인 회합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원은 순식간에 교육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조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접목하여 자신들의 삶과 일본사회를 변혁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창가교육학회는 일련정종의 일반 신도의 모임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다른 불교 신도 단체와는 달리, 승려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마키구치와 도다가 모든 회합의 책임을 지고 신심의 지도를 맡았다. 창가학회는 그 시작부터 승려들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일반 신도들의 모임이었던 것이다.

창립부터 창가학회 회원들은 회원들이 신심 수행을 통해 참된 행복을 깨닫고,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 자체에 기반을 두고 신심을 하였다. 1930년대와 1940년대 초반에 비약적인 발전을 한 창가교육학회는 포교활동과 회원들 집에서 열리는 좌담회 및 큰 회합을 통해 회원 수가 3천 세대에 이르렀다.

### **군국주의 정부와 투쟁**

1930년대 중반, 일본 정부는 종교와 사상을 통제하여 정부의 전쟁을 지원하고 국수주의와 공공의 단결을 강화할 목적으로 천황과 국가를 믿는 국가신도를 강요하게 된다. 마키구치와 도다는 군국주의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니치렌 대성인의 인간주의 원리를 고수하며, 국가를 전쟁으로 이끄는 신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되었고, 창가교육학회의 좌담회에는 항상 특별고등경찰의 감시가 뒤따랐다.

1940년대 초반, 일본의 종교단체에 신도를 받아들여 신찰을 받으라는 압박이 심해지고 있었다. 정부의 탄압을 두려워한 일련정종 중문의 승려들은 1943년 6월 신찰을 받아들이고 창가교육학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신찰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중문의 행동은 니치렌 대성인과 닛코상인의 의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용감하게 불법을 수호하는 대신 전쟁을 지지하는 신도와 타협한 것이다. 사실 중문은 일본이 미국과 영국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을 공식적으로 찬미하기도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밀려오는 압박에도 마키구치와 도다는 신찰을 거부하고 올바른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을 지켜갔다.

그로 인해 마키구치는 1943년 7월 6일 이즈의 죄담회에서 체포되었고, 같은 날 도다 역시 도쿄에서 21명의 다른 창가교육학회 지도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치안유지법 위반과 불경죄라는 죄목으로 체포된 그들은 모진 고문 끝에 마키구치와 도다를 제외하고 모두 신심을 버렸다.

## 도다의 옥중 오달

마키구치는 감옥에서도 일본의 종교와 전쟁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며 간수에게까지 대성인의 불법을 알려나갔다. 술한 회유와 협박에도 이랑곳하지 않고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확신을 온몸으로 체현한 것이다.

도다는 고행인 스승을 걱정하여, “저는 아직 젊습니다. 선생님은 일흔넷이십니다. 바라건대 죄는 제 한몸에 받도록 해 주시고 선생님을 하루라도 빨리 귀가토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원해 나갔다.

1944년 초부터 도다는 감옥에서 진지하게 제목을 부르며 법화경을 반복해서 읽어나갔다. 그는 법화경 무량의경에 나오는 부처의 실체인 34비(非)가 가진 의미를 깊이 생각했다. 깊은 기원과 성찰 끝에 도다는 부처란 생명 그 자체이며, 부처의 생명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의 생명 안에 있으며 광대한 우주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후 11월 진지한 창제 끝에 그는 자신이야말로 지용의 보살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현재에 해당하는 석존 멸후 혼돈의 시대인 말법에 법화경을 흥통하는 사명을 부촉받은 것이 바로 지용의 보살이라고 나와 있다.

그 후 1944년 11월 18일 마키구치는 노령과 극도의 영양실조로 73세의 나이에 도쿄 형무소에서 옥사하게 된다. 그날은 바로 창가교육학회의 설립 기념일이기도 했다. 마키구치는 최후까지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대로의 삶을 살았고, 남묘호련계교를 유포하며 고통받는 민중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성인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헌신했다.

제자인 도다는 옥중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광선유포의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 이 옥중 오달이 전후 창가학회 발전의 시발점이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46년 마키구치의 장례식에서 도다는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당신의 광대무변하신 자비는 저를 감옥에까지 데리고 가 주셨습니다. 덕분에 ‘재재제불토 상여사구생(재재 모든 불토에 항상 스승과 함께 태어나리라)’이라는 묘법연화경의 일구를 몸으로 읽었으며 공덕으로 지용의 보살의 본사를 알고 법화경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신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 구절에서 ‘상여사구생’이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함께 노력하는 스승과 제자의 깊은 유대를 상징한다. 도다 조세이의 말은 스승인 마키구치 쓰네사부로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전후 일본 창가학회의 발전

1945년 7월 3일 출소한 도다 조세이는 병약한 몸을 이끌고 2차대전 동안 외해된 창가교육학회의 재건을 위해 전 혼을 기울였다.

1946년 초부터는 법화경 강의를 시작하고 죄담회와 포교활동도 재개했다. 학회 이름도 ‘교육’이라는 단어를 빼고 사회의 평화와 행복과 번영이라는 좀 더 큰 목표를 반영하는 창가학회로 변경하였다.

## 이케다 다이사쿠의 초창기

이케다 다이사쿠는 1928년 1월 2일 도쿄 오타구의 오오모리키타에서 태어났다. 1937년 초 네 명의 형들은 모두 일본 군대에 징

잡되어 중국 전쟁에 투입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1년 당시 13세의 소년이었던 그는 폐병과 싸우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군수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케다는 전쟁의 비극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공습으로 집을 잃고 큰 형인 키이치가 전장에서 전사한 잔혹함은 이케다에게 깊은 슬픔과 분노를 남겼다. 특히 장남인 키이치의 죽음은 그의 부모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슬픔과 고통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10대 후반의 청년 이케다는 폐허가 된 일본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전시의 일본에서 가르쳤던 가치가 거짓으로 판명된 상황에서 이케다 역시 다른 젊은이들처럼 정신적인 공허함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1947년 8월 14일 창기학회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 청년 이케다는 그 자리에서 도다에게 인생과 애국자, 천황과 남모호렌계 교에 대해 질문했다. 기교 따위는 전혀 없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논리적이고 명료한 도다의 대답에 매료된 그는, '얼마나 이아가 빠른 사람인가. 그러면서도 조금의 미혹도 없다. 이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도다가 일본 군국주의 정부의 압력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아 투옥되었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은 이케다는, 대화가 끝나자 도다의 슬하에서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로부터 10일 후인 8월 24일 이케다는 스승인 도다를 따르기로 결의하고 창기학회에 입회하였다. 그리고 신심을 시작한 지 2년 후인 1949년 1월 도다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편집장으로 취직하게 된다.

## 은사를 위해 헌신

1949년 7월 창기학회는 교학 잡지인 '대백연화'를 발간하게 되는데, 그 해 말에는 전쟁 후 일본의 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출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케다가 편집장을 맡고 있던 잡지도 발행이 중단되자, 그는 도다의 새로운 신용조합 건설을 돕기 시작하지만, 곧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케다는 사업과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창기학회를 이끄는 책임까지 맡아 혼신을 다해 스승을 도왔다.

1950년 경제불황이 심해지고 도다의 사업 또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비록 도다의 사업이 창기학회 초창기 성장의 재정적 기반이 되긴 했지만, 점차 그의 사업은 쇠퇴하고 빛도 늘어만 갔다. 특히 실패한 신용조합과 연관이 있던 일부 회원들이 도다와 창기학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던 무렵인 8월 23일 신용조합은 문을 닫았다. 자신의 재무 문제로 학회에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도다는 8월 24일 창기학회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게 된다.

도다의 직원들은 하나둘씩 도다의 곁을 떠났지만, 도다는 굳건하게 일어서 회사의 거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이케다는 도다가 다시 경제적으로 재건하여 창기학회의 회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도다의 곁을 지키며 그를 도왔다. 도다는 자신을 돕기 위해 1년 전 야간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던 제자를 위해 정치, 경제, 문학 등 다방면에 걸친 학문과 불법을 가르치는 개인교습을 시작했다.

도다는 광선유포를 위한 신문 발간과 대학 설립이라는 자신의 비전을 제자와 함께 나눴다. 세이쿄 신문(1951년) 발간과 소카대학(1971년)의 설립은 당시 두 사제의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

## 도다의 창기학회 2대 회장 취임

1950년과 1951년 도다 조세이와 이케다 다이시쿠는 도다의 재정 상태를 복구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도다는 결의했다. "어떠한 고난이 더욱더 겹칠지라도 이것을 극복해 가야만 한다. 이제 나의 몸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오로지 나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니치렌 대성인의 말씀을 결단코 허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케다는 오직 스승이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재건하여 창가학회 회장으로서 지휘를 잡을 수 있게 돕겠다는 깊은 결의를 하고 있었다.

1년여간의 격투 속에서 도다의 재정적 어려움은 차츰 나아지고 있었지만 도다와 이케다의 건강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다. 이케다는 당시의 격투를 ‘오늘날의 창가학회의 발전과 존재의 참다운 요인’이라고 묘사했다.

1951년 5월 3일 도다 조세이는 창가학회 2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취임인사에서 그는 75만 세대의 절복을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당시 활동하고 있던 창가학회 세대수는 3천에 불과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도다의 목표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광선유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도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회원들에게 말했다. “만약 나의 이 원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달성되지 않는다면 나의 장례식은 하지 마십시오. 유해는 시나가와 앞바다에 던져 버리시오!”

창가학회 회장 취임 직전인 4월 20일 도다는 창가학회 신문인 세이쿄 신문을 발간했다. 또한 6월 10일에는 부인부를, 7월 11일에는 남자부, 7월 19일에는 여자부를 결성했다.

1952년 1월 도다는 이케다를 가마타 지부 간사로 임명했다. 직접 회원들을 가정방문하고 격려하면서 활동에 혼신을 다한 이케다는 한 달 만에 한 개 지부에서 201세대 절복이라는 경이적인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도다는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를 진지하고 올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광선유포 전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고문서 연구의 대가였던 호리 니치코 상인을 만나 니치렌 대성인의 유문 전부를 편찬하여 발간할 것을 부탁했다. 그리하여 니치렌 대성인의 입종선언 700주년이 되는 1952년 4월 어서전집을 발간하였다. 어서전집의 발간으로 창가학회 회원들도 니치렌대성인의 가르침을 신심 수행의 굳건한 기반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9월에는 창가학회가 일본 정부로부터 종교조직으로 공식 인정받게 된다.

당시 이케다는 조직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있었다. 1953년 1월에는 남자부 제1부대장이 되었고, 4월에는 분쿄지부 담당 간부로 임명되었으며, 다음 해 3월에는 창가학회 남자부장이 되었다.

## 학회의 전진을 방해하는 권력과의 투쟁

민중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 실현을 위해 평생을 바친 니치렌 대성인의 결의는 ‘입정안국론’에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정신을 기반으로 창가학회는 민중을 고통에 빠뜨리고 종교활동을 억압하는 부패한 정치에 맞서 1955년 4월 처음으로 국회에 후보자를 내보내게 된다.

이케다 다이사쿠는 당시 간사이 지역에서 포교활동을 지휘하면서 오사카 지부에서 1956년 5월 한 달 동안 11,111세대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하였고, 7월에는 오사카에서 창가학회 선거운동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오사카에서는 학회에서 지원하는 3명의 후보자가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 승리로 창가학회는 영향력 있는 민중운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당시 학회의 성공에 위협을 느끼고 있던 많은 단체로부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었다. 그 예로 1957년 6월 지역의 사회당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던 일본 탄광노조가 있던 홋카이도의 유바리에서 노조에 소속된 창가학회원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케다는 즉시 유바리로 달려가 불합리한 처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토론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유바리 사건 직후인 1957년 7월 3일 오사카 경찰은 사실무근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이케다를 체포하였다. 이케다는 15일간 취조를 받았다. 검사는 이케다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다를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갈수록 쇠약해지는 스승을 다시 감옥으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 이케다는 스승을 지키기 위해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7월 17일 기소되었고 오사카 구치소

에서 풀려난 후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1962년 1월 15일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 광선유포의 미래를 청년에게 위탁

1957년 9월 8일 도다 조세이는 모든 핵무기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청을 담은 원수폭 금지선언을 발표한다. 원자폭탄이 가져오는 대량살상과 파괴 때문에 도다는 그것을 사용하려는 사람을 악마라고 규정하고,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인간 생명의 마성을 타파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이 원수폭 금지선언이 훗날 창가학회 평화운동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그 해 12월에는 도다의 생애 원업이었던 학회 75만 세대 종교가 달성되었으며, 1958년 3월에는 창가학회가 대석사에 건립하여 기증한 법회본문 대강당이 완성되었다.

3월 16일에는 전국에서 남녀청년부 6천 명이 대석사에 결집, 이 자리에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2대 도다 회장은 “창가학회는 종교계의 왕자다!”라고 선언하며 광선유포 후사의 일체를 청년에게 위탁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3월 16일 광선유포 날의 유래이다.

그리고 4월 2일 도다는 58세의 나이로 서거한다. 그는 옥중에서 깨달은 ‘부처는 생명이다’라는 자각으로 창가학회를 성공적으로 재건하고 광선유포의 확고한 토대를 다졌다. 그가 키워낸 수많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가장 가까웠던 이케다 다이사쿠가 훗날 창가학회의 3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 (3) 불법 인간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네트워크의 설립

1960년 5월 3일, 이케다 다이사쿠는 “아직은 젊지만 도다 문하생을 대표하여 회의의 광선유포를 목표로 일보 전진의 지휘를 잡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창가학회 3대 회장에 취임한다.

그는 창가학회 2대 회장이었던 도다 조세이의 위업을 이어받아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세계로 광선유포하겠다는 결의를 가슴에 품고 회장 취임 5개월 후인 1960년 10월 2일 북남미 9개 도시 순방길에 올랐다. 방문하는 도시마다 이케다 회장은 현지의 창가학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대부분이 일본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뉴욕에서 유엔본부를 방문한 이케다 회장일행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국제단체로서의 역할과 잠재력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케다 회장은 그로부터 기념제언과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엔을 지원하고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의지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전을 제시해 왔다. 1983년 핵폐절과 환경보호 그리고 유엔의 기능강화와 같은 주제에 대한 상세한 제안내용과 구상을 담은 첫 번째 유엔 평화제언을 발표한 이래 매년 평화제언을 계속해 오고 있다.

1961년 1월에 인도를 처음 방문한 이케다는 석가모니가 성불했다고 알려지는 부다가야에서 평화와 대화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아시아의 철학과 문화를 연구하는 기관 창설을 구상하고 이듬해 동양철학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

또한, 1963년에는 문화와 예술 교류를 통한 평화증진에 헌신하는 민주음악협회(민음)를 창설하였다.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평화를 존중하고 민중을 아름답고 희망이 있는 밝은 내일로 이끈다. 반면 포악한 권력은 예술과 정반대인 어둠으로 민중을 이끈다. 그래서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널리 유포하는 것이 평화 창출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

이케다 회장은 일본 전역을 돌며 창가학회 회원들을 격려했고 있다. 특히 차세대 지도자 육성에 초점을 두고 학생부 대표를 대상으로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강의를 하면서, 1964년 6월에는 고등부를, 1965년에는 중등부와 미래부를 창설했다.

그는 1965년, 은사인 도다가 2차대전이 끝난 후 출옥하여 창가학회의 재건을 위해 격투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소설 인간혁명의

집필을 시작했으며, 이는 신인간혁명의 집필로 이어져 창가학회 8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 대회를 통한 평화의 추구

평화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이케다 회장은 이제까지 1600여 명에 이르는 전 세계 정치, 문화, 교육, 예술계 지도자들과 교류를 계속해 왔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1970년대 초 2년 반에 걸쳐 계속된 이케다 회장과 영국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와의 대담이다. 이 대담을 계기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와 베티 윌리엄스, 미래학자인 헤젤 헨더슨 박사를 포함한 수많은 유명 사상가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계속되었다.

1974년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소련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곧바로 소련을 방문하여 지도자들에게 중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아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이 확인을 전했다. 1년 후 이케다 회장은 이 두 나라의 정치가들과 심오한 대화를 나누며 평화의 씨앗을 심고 신뢰의 연대를 쌓아갔다.

1974년 이케다 회장과 소련 코쉬킨 수상과의 대담 당시 통역을 맡았던 레온 스트리자크 모스크바 대학 교수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이케다 회장과 코쉬킨 수상의 대담 주제는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보통의 일본대표단들과 논의했던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과 평화, 전쟁과 그 피해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다음 해 1월 이케다 회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를 평화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들과 대화했다. 그리고 같은 달 26일 밤에서 국제창가학회(SGI)를 설립하게 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다시 말해 SGI는 냉전의 암운으로 뒤덮인 국제사회에서 대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과 소련을 더 가깝게 모으자는 내 노력의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위압적인 힘의 균형과 무력을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쓰디쓴 교훈을 가르칩니다. 대화의 선택이야말로 평화를 건설하고 인간주의의 승리를 쟁취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SGI의 설립 이래로 이 진실은 세계시민의 울부짖음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 평화 전 중일우호협회 회장은 이케다 회장의 외교적 노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케다 회장이 건설한 신뢰의 황금가교는 많은 사람이 왕래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 종문과의 분리

창가학회는 1930년 초창기부터 일련정종 종문의 주요한 후원자였다. 세계 제2차대전 후 창가학회의 성장은 알려지지 않은 작고 가난한 불교 종파였던 일련정종 종문을 일본 최대의 종교단체로 탈바꿈시켰다.

1970년대 창가학회 회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케다 회장은 니치렌 대성인 어서에 입각하여 학회의 신도들도 종문의 승려들과 전혀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스피치나 강연을 통해 지적했다. 당시 종문의 승려들이 권위적이고 오만하며 심지어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태도로 신도들을 대한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었고, 신도들은 더 많은 금전적 공양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을 경시하는 종문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케다 회장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종문과 대화를 시도했다.

당시 종문의 승려들은 이케다 회장의 대중적 언설과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맞물려 창가학회 변호사가 이케다 회장을 모함하기 위해 종문에게 창가학회의 가상 의도에 관한 거짓 보고를 전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비난과 맞고소가 이어지면서 긴장은 극에 달했다.

당시의 긴박감을 이케다 회장은 수필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고뇌했다. 더 이상 학회원이 괴로워하고 중에게 박해당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도다 선생님이 ‘목숨보다도 소중한 조작’이라고 하신 학회이다. 민중의 행복을 위한, 광선유포를 위한, 세계평화를 위한 불의불칙의 조직이다. 나의 심중은, 오직 이 한 몸으로 흠탕물을 뒤집어쓰고 회장에서 물러나자는 쪽으로

굳어가고 있었다.”

1979년 4월 24일 이케다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중문에서는 회합에서 창가학회 회원들에게 지도하는 것은 물론 학회 기관지에 글을 기고하는 것조차 금지한다는 엄격한 제재를 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케다 회장은 회원들을 격려할 방법을 찾았다. 회원들에게 짧은 시나 휘호를 써주는 것이었다. 그는 전국을 돌며 회원들을 가정방문했다. 자칫 나약해 보일 수 있는 후퇴를 SGI와 세계평화 구축을 위한 견고한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사명을 굳건히 하기 위해 더 장대한 비전을 완성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창가학회와 중문과의 갈등은 결국 이케다 회장이 창가학회와 SGI의 명예 회장으로서 좀 더 공적인 불교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 때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년 동안 범주인 닛켄은 창가학회를 중문의 직접 지휘하에 두거나 이에 해산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결국 중문은 창가학회를 상대로 근거 없는 불평들을 공표한 후 그것을 구실로 1991년 11월 창가학회 조직 전체를 파문했다. 계속되는 창가학회의 요청에도 중문은 학회와의 정면대화를 거부했다.

닛켄은 학회를 파문하면 더 많은 학회원이 SGI를 떠나 중문으로 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중문으로 간 회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으며, SGI에 남은 대다수의 학회원은 중문의 파문을 낚고 강압적인 관습에서의 해방이라고 보고 있었다. SGI는 국제사회의 상황에 맞춰 더 근대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유포하고 전 세계에서 신뢰와 우정의 연대를 넓힐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다.

## 영구 평화의 기반을 구축

이케다 회장은 현재 83세로 전세계의 다양한 철학자, 과학자 및 지도자들과 대화를 거듭하면서 매년 유엔에 평화제언을 계속해 오고 있다. 수많은 학술기관과 정부, 조직들이 이케다 회장을 진정한 평화의 건설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케다 회장은 회원들이 신심을 통해 더욱 강성하게 성장하여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평화와 행복을 구축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다. 또한, 매일 신인간혁명을 연재하고 있으며 수많은 메시지와 수필은 물론 ‘승리의 경전 어서에서 배운다.’와 같은 어서강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 청년들이 자신과 같은 도전을 통해 가장 인도주의적인 불교원리에 기초한 영구 세계평화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나가고 있다.

60여 년 동안 이케다 회장은 스승인 도다 회장의 비전을 가슴에 품어왔다. 그는 말했다. “도다 선생님은 세계에 초점을 맞추셨다. 인류 전체를 생각하셨다. 한번은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태양의 빛과 같다. 묘법의 빛이 비치면 수많은 창가학회 회원들은 절망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삶을 용감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묘법은 인류의 숙업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이 평화건설에 헌신하는 조직인 우리 창가학회의 사명이다.” ■